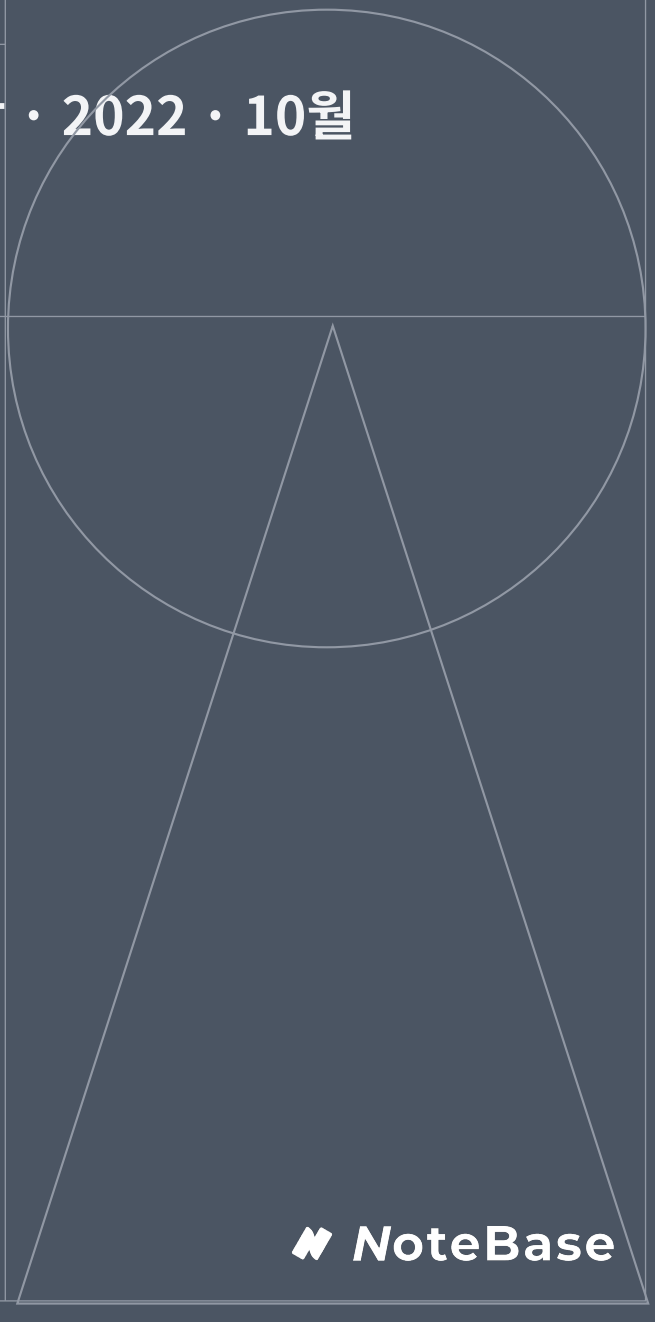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22 · 10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22 · 10월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22 · 10월

문 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상 부채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의무가 있어야 하며, 해당 의무는 항상 다른 당사자(또는 당사자들)에게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어야 한다.

②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 법률제정 그 자체만으로는 기업에 현재의무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부채가 존재하기 위한 경제적자원의 이전의무에는 불리한 조건으로 다른 당사자와 경제적자원을 교환할 의무도 포함된다.

④ 경제적자원의 이전 가능성이 낮다면 해당 의무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는 없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개념체계상 부채의 정의와 인식 요건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다.
부채의 정의는 의무의 존재 자체를 판단하는 개념이고, 경제적자원 이전 가능성의 높고 낮음은 주로 인식이나 측정의 문제와 연결된다.
불리한 조건의 교환의무도 결국 다른 당사자에게 경제적자원을 이전하는 형태이므로 부채에 포함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부채가 되려면 기업에 현재의무가 있어야 하고, 그 의무는 다른 당사자에게 경제적자원을 이전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부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외부 당사자에 대한 의무라는 점에서 옳다.
② O: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그 자체만으로 현재의무가 곧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그 법률에 따라 실제로 회피할 수 없는 의무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추가로 보아야 하므로 옳다.
③ O: 부채의 정의에는 현금 지급의무만이 아니라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이나 용역을 교환해야 하는 의무도 포함된다. 불리한 교환은 기업의 경제적자원 유출을 초래하므로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경제적자원의 이전 가능성이 낮다면 해당 의무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는 없다'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이전 가능성이 낮아도 현재의무가 존재하면 부채의 정의는 충족할 수 있다. 가능성의 높고 낮음이 부채의 정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포인트

부채의 정의와 부채의 인식을 같은 단계로 섞으면 ④에 흔들린다. 출제자는 '이전 가능성이 낮다'는 문구로 존재 판단과 인식 판단을 뒤섞는 함정을 만든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채 문제는 먼저 현재의무가 있는지, 상대방에게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지로 정의를 판단한다. 그다음 이전 가능성이나 금액의 불확실성은 인식과 측정 단계의 문제로 분리해서 본다.

암기 포인트

부채의 정의는 현재의무, 인식은 가능성과 측정이다.

NoteBase

문 2. <보기>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는 (주)서울의 20X1년 고정예산과 실제결과에 관한 자료이다. 변동예산하의 영업이익은?

〈보기〉

	실제결과	변동예산	고정예산
매출량	1,000개		1,200개
매출	₩50,000		₩60,000
변동제조원가	₩25,000		₩24,000
공헌이익	₩25,000		₩36,000
고정제조간접원가	₩2,200		₩2,000
영업이익	₩22,800	?	₩34,000

① ₩27,800

② ₩28,000

③ ₩31,200

④ ₩32,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제 매출량에 맞춰 변동비만 다시 편성하는 변동예산에서 영업이익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고정예산 매출량 1,200개, 매출 60,000원, 변동제조원가 24,000원, 고정제조간접원가 2,000원이다.
- 실제 매출량은 1,000개, 실제 매출은 5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 실제 매출량 1,000개 기준의 변동예산 영업이익이다.

주의할 조건:
- 변동예산은 실제 조업도에 맞춰 매출과 변동비를 조정하지만, 고정비는 예산액 2,000원을 그대로 사용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22 · 10월

사용할 공식

변동예산 영업이익 = 변동예산 매출 - 변동예산 변동제조원가 - 예산 고정제조간접원가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변동예산은 실제 매출량에 맞춰 변동항목만 다시 계산하고, 고정항목은 원래 예산액을 유지하는 예산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고정예산 기준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24,000 \div 1,200 = 20$원이다.
2. 실제 매출량 1,000개 기준 변동예산 변동제조원가는 $20 \times 1,000 = 20,000$원이다.
3. 변동예산 매출은 실제 매출량 기준으로 50,000원이다.
4. 변동예산 공헌이익은 $50,000 - 20,000 = 30,000$원이다.
5. 변동예산 영업이익은 $30,000 - 2,000 = 28,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변동예산 영업이익은 28,000원이다.
- 27,800원은 변동예산 금액에 실제 고정제조간접원가 2,200원을 차감한 혼합 계산값이다.
- 변동예산에서는 실제 고정비가 아니라 예산 고정비 2,000원을 써야 하므로 27,800원이 아니라 28,000원이다.

② O
- 실제 매출량 1,000개에 맞춘 변동예산 변동제조원가는 20,000원이고,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예산액 2,000원 그대로이다.
- 따라서 영업이익은 $50,000 - 20,000 - 2,000 = 28,000$원으로 ②가 맞다.

③ X
- 변동예산 영업이익은 31,200원이 아니라 28,000원이다.
- 31,200원은 매출량 감소 200개의 이익 감소효과를 단위공헌이익 30원이 아닌 다른 수치로 잘못 반영한 오답값이다.
- 매출량 감소 효과는 $30 \times 200 = 6,000$원 감소이므로 고정예산 영업이익 34,000원에서 차감하면 28,000원이 된다.

④ X
- 32,000원은 고정제조간접원가 2,000원을 차감하지 않거나 공헌이익과 영업이익을 혼동한 값이다.
- 변동예산 공헌이익 30,000원에서 고정제조간접원가 2,000원을 빼야 하므로 32,000원이 아니라 28,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표준원가계산의 변동예산 문제에서는 실제 수치와 예산 수치를 섞기 쉽다. 특히 실제 고정제조간접원가 2,200원을 넣거나, 공헌이익 30,000원을 영업이익으로 착각하면 오답이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변동예산 문제는 먼저 실제 조업도를 확인하고, 그 조업도에 맞춰 변동비만 다시 계산한 뒤, 고정비는 원예산 금액을 그대로 차감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변동예산은 변동비만 움직이고 고정비는 그대로라는 점이 핵심이다.

문 3. 연결재무제표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고기업은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킨다.

②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제거한다.

③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있다면 그 공정가치를 인식한다.

④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자본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보고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 변동을 반영하여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력 상실 시점의 제거·재측정과 비지배지분, 잔존지분의 개념 구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 순자산 중 모기업이 아닌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이다.
잔존지분은 지배력 상실 후에도 모기업이 계속 보유하는 투자지분으로, 더 이상 비지배지분이 아니다.
지배력을 상실하면 종속기업의 자산·부채·영업권을 제거하고 남은 투자지분은 상실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를 지배기업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킨다. 비지배지분이 손실로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귀속 자체는 계속 이루어진다.
② O: 지배력을 상실하면 그 시점에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연결에서 제거하며, 영업권도 함께 제거한다. 더 이상 종속기업이 아니므로 기존 연결 장부금액을 남겨 둘 수 없다.
③ X: 틀린 부분은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이다. 지배기업이 지배력을 상실한 뒤 남아 있는 지분은 비지배지분이 아니라 잔존지분이다. 올바르게는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지분이 있다면 그 공정가치를 인식한다'이다.
④ O: 지배력을 유지한 채 모기업과 비지배지분의 상대적 지분율만 변하면 이는 자본거래로 본다. 따라서 상대적 지분 변동을 반영하여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오답 포인트

비지배지분과 잔존지분을 같은 말처럼 보면 ③에 속기 쉽다.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이 계속 존재할 때 연결자본 내에서 쓰는 개념이고, 지배력 상실 후 남은 투자는 잔존지분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결문제에서 '지배력 상실'이 보이면 먼저 자산·부채·영업권 제거, 잔존지분 공정가치 재측정, 관련 누적 기타포괄손익 재분류 여부를 순서대로 떠올리면 된다. 반대로 지배력을 잃지 않은 지분 변동이면 자본거래로 처리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지배력 상실은 제거와 재측정, 지배력 유지 지분변동은 자본거래이다.

NoteBase

문 4.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자산 및 부채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수세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미수세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가산항목으로 표시한다.

③ 우발이익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이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④ 회계추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미치는 것으로 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표시방법, 우발이익의 주석 공시, 회계추정 변경의 처리원칙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사용수익권은 지방자치단체 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거나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우발이익은 장래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이익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잠재적 이익이다.

핵심 구분

미수세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뒤 미수세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가산항목이 아니라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우발이익은 발생이 확실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미치는 것으로 본다.

선지별 해설

1번 O: 미수세금은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그 충당금을 미수세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는 점이 맞다. 자산을 총액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회수 가능 순액에 가깝게 표시하는 방식이다.
2번 X: 규칙상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가산항목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가산항목"이며, 올바른 표현은 "차감항목"이다.
3번 O: 우발이익은 실제 이익이 아직 확정 인식된 자산은 아니므로 본표에 바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이 확실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한다는 점이 맞다.
4번 O: 회계추정의 변경은 이미 확정된 과거 수치를 소급 수정하는 성격이 아니라 변경 이후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처리한다는 점이 맞다. 따라서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미치는 것으로 본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자산 관련 문항에서 수험생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가산항목과 차감항목의 방향이다. 2번은 사용수익권이라는 자산성 있는 이름 때문에 자동으로 가산항목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규칙상 표시방식은 차감항목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시방식을 묻는 선지는 먼저 가산인지 차감인지, 인식인지 주석 공시인지, 소급처리인지 장래처리인지를 순서대로 구분하면 된다. 이 셋만 갈라내면 자산평가형 선지의 정오가 빠르게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미수세금은 차감표시, 사용수익권도 차감표시, 우발이익은 주석표시, 회계추정 변경은 장래효과이다.

NoteBase

문 5. <보기>는 20X1년 12월 31일 (주)서울의 재무제표 정보이다. 재무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회전율 계산 시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또한 이자보상비율에서 이익은 이자비용차감전순이익을 사용한다.)

〈보기〉

매출액: ₩450,000	이자비용차감전순이익: ₩135,000
이자비용: ₩20,000	유동부채: ₩500,000
기초 총자산: ₩1,500,000	기말 총자산: ₩2,500,000
기초 매출채권: ₩100,000	기말 매출채권: ₩200,000

① (주)서울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3회이다.

② (주)서울의 총자산 회전율은 0.25회이다.

③ (주)서울의 매출채권평균회수기간은 120일이다.

④ (주)서울의 이자보상비율은 6.75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평균 매출채권, 평균 총자산을 사용해 회전율과 평균회수기간을 계산하고, 이자보상비율까지 함께 판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매출액 450,000원, 이자비용 20,000원, 이자비용차감전순이익 135,000원, 기초 총자산 1,500,000원, 기말 총자산 2,500,000원, 기초 매출채권 100,000원, 기말 매출채권 20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매출채권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평균회수기간, 이자보상비율이다.
주의할 조건은 회전율 계산에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사용하고, 1년은 360일로 본다는 점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22 · 10월

사용할 공식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액 ÷ 평균 매출채권이다.
총자산 회전율은 매출액 ÷ 평균 총자산이다.
매출채권 평균회수기간은 360 ÷ 매출채권 회전율이다.
이자보상비율은 이자비용차감전순이익 ÷ 이자비용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보기의 모든 수치가 재무비율 계산에 필요한 분자와 분모로 직접 제시되어 있고, 문제에서 평균 사용 조건과 360일 기준까지 명시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평균 매출채권은 $(100,000 + 200,000) \div 2 = 150,000$원이다.
2. 매출채권 회전율은 $450,000 \div 150,000 = 3$회이다.
3. 매출채권 평균회수기간은 $360 \div 3 = 120$일이다.
4. 평균 총자산은 $(1,500,000 + 2,500,000) \div 2 = 2,000,000$원이다.
5. 총자산 회전율은 $450,000 \div 2,000,000 = 0.225$회이다.
6. 이자보상비율은 $135,000 \div 20,000 = 6.75$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매출채권 회전율은 $450,000 \div 150,000 = 3$회이므로 옳다.

② X
총자산 회전율은 $450,000 \div 2,000,000 = 0.225$회이므로 0.25회라는 진술은 틀리다.
틀린 표현은 "0.25회"이고, 올바르게는 "0.225회"이다.
0.25회는 평균 총자산을 잘못 계산하거나 분모를 단순화해서 생기는 오답이다.

③ O
매출채권 평균회수기간은 $360 \div 3 = 120$일이므로 옳다.
회전율을 먼저 구한 뒤 360일 기준으로 나누면 된다.

④ O
이자보상비율은 $135,000 \div 20,000 = 6.75$이므로 옳다.
문제에서 이익은 이자비용차감전순이익을 사용한다고 조건을 따로 주었으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총자산 회전율에서 평균 총자산을 써야 한다는 조건을 놓치면 쉽게 틀린다. 기초와 기말을 평균하지 않거나 계산값 0.225를 0.25로 뭉뚱그리면 오답이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무비율 계산 문제는 먼저 분자와 분모를 정리하고, 평균 사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 회전율을 구해 기간으로 바꾸는 순서로 판단한다. 회전율과 평균회수기간은 서로 역수 관계에 360일을 곱하거나 나누는 구조임을 함께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회전율은 매출액 ÷ 평균 잔액, 평균회수기간은 360 ÷ 회전율, 이자보상비율은 이자비용차감전순이익 ÷ 이자비용이다.

NoteBase

문 6. <보기>는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주)서울의 천연가스 시추를 위한 해양플랜트에 관한 자료이다. 20X5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해양플랜트 관련 계상될 총비용은? (단, 단수 차이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보기>
• 해양플랜트의 취득원가는 ₩99,379이다. (취득일: 20X1년 1월 1일)
• 취득 당시 추정내용연수는 5년, 추정잔존가치는 ₩0이었으며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기로 결정하였다.
• (주)서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이 완료되는 20X5년 말에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취득 시 이와 관련된 비용을 ₩1,000으로 예측하였다.
• (주)서울은 예정대로 20X5년 말까지 사용하고 ₩1,200을 지출하여 해양플랜트를 철거하였다.
• (주)서울의 할인율은 10%이다. 10%의 5기간 말 ₩1의 현가계수는 0.621이고, 10%의 1기간 말 ₩1의 현가계수는 0.91이다.

① ₩20,200
② ₩20,247
③ ₩20,291
④ ₩20,311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복구충당부채가 붙은 유형자산의 마지막 해 총비용을 감가상각비,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 실제 철거 시 정산손실로 나누어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주어진 값: 해양플랜트 취득원가 99,379원, 취득 시 복구원가 추정액 1,000원, 5기간 현가계수 0.621, 1기간 현가계수 0.91, 실제 철거지출 1,200원이다.
- 구해야 할 값: 20X5년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될 해양플랜트 관련 총비용이다.
- 주의할 조건: 복구원가의 현재가치 621원은 취득 시 자산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되며, 20X5년에는 복구충당부채 할인상각 이자와 실제 정산손실도 함께 비용으로 반영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복구충당부채 현재가치와 자산원가는 다음과 같다.
복구충당부채 현재가치 = 1,000 × 0.621 = 621
감가상각대상원가 = 99,379 + 621 = 100,000
연간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100{,}000 \div 5 = 20{,}000$
20X5년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다.
$1{,}000 - 1{,}000 \times 0.91 = 90$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취득 시 복구원가 현재가치를 자산과 부채에 함께 반영하고, 마지막 해에는 감가상각비와 부채 할인상각, 실제 철거지출과 부채 장부금액의 차이를 모두 손익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취득 시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는 621원이므로 해양플랜트 장부에 가산된다.
2. 따라서 연간 감가상각비는 100,000원 ÷ 5년 = 20,000원이다.
3. 20X5년의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은 약 90원이며, 정확치로 계산하면 약 90.91원이다.
4. 실제 철거지출은 1,200원이지만 부채 장부금액 1,000원을 제거하므로 정산손실은 200원이다.
5. 총비용은 20,000원 + 90원 + 200원 = 20,290원이고, 정확치로는 약 20,291원이므로 가장 가까운 값은 ③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20,200원은 99,379원만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감가상각비를 약 19,876원으로 잡은 뒤 나머지 비용만 더한 값에 가깝다.
- 틀린 표현은 금액 20,200원이다. 올바르게는 복구원가 현재가치 621원도 자산원가에 포함하므로 총비용은 약 20,291원이다.

② X
- 20,247원은 감가상각비 20,000원과 정산손실 200원은 반영했더라도 복구충당부채 할인상각 이자비용을 47원 수준으로 잘못 본 값에 가깝다.
- 틀린 표현은 금액 20,247원이다. 올바르게는 20X5년 이자비용이 약 90원 또는 정확치로 약 90.91원이므로 총비용은 약 20,291원이다.

③ O
- 복구원가 현재가치 621원을 자산원가에 포함하면 연간 감가상각비는 20,000원이다.
- 20X5년 이자비용은 약 90원이고, 실제 철거지출 1,200원과 부채 1,000원의 차이로 정산손실 200원이 발생하므로 총비용은 20,290원이며 정확치로는 약 20,291원이다.

④ X
- 20,311원은 20X5년 복구충당부채 할인상각 이자비용을 110원 안팎으로 과대계상한 값에 가깝다.
- 틀린 표현은 금액 20,311원이다. 올바르게는 20X5년의 부채 증가분이 약 90원 수준이므로 총비용은 약 20,291원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99,379원을 최종 자산원가로 오해하는 점과 실제 철거지출 1,200원을 전액 당기비용으로 보는 점이다. 이 문항에서는 복구원가 현재가치 621원을 먼저 자산에 가산하고, 말기에는 실제 지출 1,200원 중 부채 1,000원을 제외한 200원만 정산손실로 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복구의무가 붙은 유형자산 계산형은 취득 시 현재가치를 자산에 가산한다, 기간 중에는 할인상각 이자비용으로 부채를 불린다, 종료 시에는 실제지출과 부채 장부금액의 차이만 손익으로 잡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복구충당부채 문항은 취득 시 자산가산, 기간 중 이자비용, 종료 시 실제지출과 부채 차이만 손익이라는 세 단계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7. (주)서울은 20X1년 1월 1일 건물을 ₩100,000에 취득하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 후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다. 동 투자부동산의 내용연수는 5년이고, 감가상각이 필요한 경우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동 투자부동산의 20X1년 말과 20X2년 말 공정가치는 각각 ₩110,000과 ₩80,000이었다. 20X3년 초 (주)서울은 동 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여 매년 재평가하는 것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20X3년도 말의 재무상태표에 비교표시되는 20X2년도 말 이익잉여금(20X3년도의 기초이익잉여금)을 ₩50,000으로 보고하였다. (주)서울이 전기 재무제표를 소급재작성하여야 할 항목은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없다고 가정한다. (주)서울이 회계정책 변경 전 20X2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한 이익잉여금은? (단, 회계정책의 변경은 정당한 변경으로 간주한다.)

① ₩20,000

② ₩30,000

③ ₩50,000

④ ₩7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투자부동산의 원가모형을 공정가치모형으로 소급 변경할 때 20X2년 말 이익잉여금의 누적 조정효과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 1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원가모형 장부금액: 20X1년 말 80,000, 20X2년 말 60,000
공정가치모형 평가액: 20X1년 말 110,000, 20X2년 말 80,000
소급재작성 후 20X2년 말 이익잉여금: 50,000

사용할 공식

변경 전 이익잉여금 = 소급재작성 후 이익잉여금 -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효과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효과는 각 연도에 공정가치모형으로 인식했을 손익과 원가모형으로 인식한 손익의 차이를 누적해서 구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원가모형에서는 매년 감가상각비 20,000을 인식한다.
2. 공정가치모형에서는 20X1년에 평가이익 10,000, 20X2년에 평가손실 30,000을 인식한다.
3. 연도별 손익 차이는 20X1년에 30,000 증가, 20X2년에 10,000 감소이므로 누적 조정효과는 20,000 증가이다.
4. 따라서 변경 전 20X2년 말 이익잉여금은 50,000 - 20,000 = 30,000이다.

선지 판단

① X: 20,000으로 보면 소급재작성 효과가 30,000이어야 50,000이 되는데, 실제 누적 조정효과는 20,000이다. 틀린 표현은 '변경 전 이익잉여금이 20,000이다'이고, 올바르게는 30,000이다.
② O: 공정가치모형으로 소급하면 20X2년 말 이익잉여금이 원가모형보다 20,000 더 커진다. 따라서 소급재작성 후 50,000에서 20,000을 차감한 30,000이 변경 전 보고액이다.
③ X: 50,000은 회계정책 변경 후 비교표시된 이익잉여금이다. 틀린 표현은 '소급재작성 후 금액과 변경 전 금액이 같다'이고, 올바르게는 변경 전 금액은 30,000이다.
④ X: 70,000은 누적 조정효과 20,000의 방향을 반대로 적용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변경 전 이익잉여금이 소급재작성 후 금액보다 크다'이고, 올바르게는 소급재작성 후 금액이 20,000 더 크다.

오답 포인트

소급재작성 후 표시된 50,000을 그대로 답으로 고르거나, 누적 조정효과 20,000의 부호를 반대로 적용하면 오답이 된다. 원가모형의 감가상각 20,000씩과 공정가치모형의 연도별 평가손익을 따로 비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회계정책 소급변경 문제는 기존 모형의 연도별 손익과 변경 후 모형의 연도별 손익을 먼저 나란히 놓고 차이를 누적한 뒤, 비교표시된 기말 이익잉여금에서 그 누적효과를 역산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소급변경의 핵심은 '비교표시 이익잉여금 = 변경 전 이익잉여금 + 누적 조정효과'라는 관계이다.

NoteBase

문 8. (주)서울은 두 종류의 제품(제품 A, 제품 B)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현재 상황에서 월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은 500kWh이다. 제품 A와 제품 B의 판매 및 생산관련 자료는 <보기>와 같다. (주)서울은 300kWh의 전력을 추가구매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월간 고정비는 ₩20,000 증가한다. 전력의 추가구매로 인한 변동비 및 생산량 단위당 전력사용량 그리고 월간 예상수요량에는 변화가 없을 때, (주)서울이 300kWh의 전력을 추가구매했을 경우 영업이익의 변화는? (단, (주)서울의 모든 영업이익은 제품 A와 B의 생산 및 판매로부터 발생하고, (주)서울은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제품배합을 실행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보기〉

	제품 A	제품 B
단위당 공헌이익	₩1,000	₩2,000
생산량단위당 전력사용량	10kWh	25kWh
월간 예상수요량	30단위	50단위

① ₩20,000 감소

② ₩4,000 감소

③ ₩4,000 증가

④ ₩20,000 증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약자원인 전력을 기준으로 최적 제품배합을 다시 계산한 뒤 추가 공헌이익과 고정비 증가액을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현재 최대 전력량은 500kWh, 추가구매 전력량은 300kWh, 추가구매 후 고정비는 20,000원 증가이다.
제품 A는 단위당 공헌이익 1,000원, 전력사용량 10kWh, 예상수요량 30단위이다.
제품 B는 단위당 공헌이익 2,000원, 전력사용량 25kWh, 예상수요량 50단위이다.
구해야 할 값: 전력 300kWh 추가구매 전후의 영업이익 변화액이다.
주의할 조건: 변동비와 단위당 전력사용량과 예상수요량은 변하지 않고, 회사는 항상 영업이익이 최대가 되는 제품배합을 선택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전력이 병목이므로 전력 1kWh당 공헌이익이 큰 제품부터 생산한다.
$\frac{1,000}{10} = 100$, $\frac{2,000}{25} = 80$이므로 제품 A가 제품 B보다 전력 1kWh당 공헌이익이 크다.
따라서 먼저 제품 A의 수요를 채우고, 남는 전력으로 제품 B를 생산하는 방식이 최적배합이 된다.

계산 과정

1. 현재 500kWh에서는 제품 A 30단위를 먼저 생산한다. 제품 A 30단위에는 300kWh가 필요하므로 남는 전력은 200kWh이다.
2. 남는 200kWh로 제품 B는 8단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총 공헌이익은 30,000원 + 16,000원 = 46,000원이다.
3. 전력을 300kWh 추가구매하면 총 사용 가능 전력은 800kWh가 된다. 제품 A 30단위를 그대로 생산하면 300kWh를 사용하므로 남는 전력은 500kWh이다.
4. 남는 500kWh로 제품 B는 20단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구매 후 총 공헌이익은 30,000원 + 40,000원 = 70,000원이다.
5. 공헌이익 증가는 24,000원이고, 고정비 증가는 20,000원이므로 영업이익 변화는 24,000원 - 20,000원 = 4,000원 증가이다.

선지 판단

① X: 영업이익은 20,000원 감소가 아니다. 추가 전력으로 제품 B를 12단위 더 생산할 수 있어 공헌이익이 24,000원 증가하므로, 고정비 20,000원 증가를 차감해도 4,000원 증가가 된다. 틀린 표현은 '20,000 감소'이고, 올바르게는 '4,000 증가'이다.
② X: 영업이익은 4,000원 감소가 아니다. 추가 공헌이익 24,000원에서 고정비 증가 20,000원을 빼면 4,000원 증가가 된다. 틀린 표현은 '4,000 감소'이고, 올바르게는 '4,000 증가'이다.
③ O: 제품 A의 수요는 이미 모두 충족되므로 추가 300kWh는 제품 B 생산 확대에 쓰인다. 제품 B를 12단위 더 생산하면 공헌이익이 24,000원 늘고, 여기서 고정비 20,000원 증가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은 4,000원 증가한다.
④ X: 영업이익은 20,000원 증가가 아니다. 추가 전력으로 생기는 공헌이익 증가는 24,000원이지만, 고정비도 20,000원 함께 증가하므로 순증가액은 4,000원에 그친다. 틀린 표현은 '20,000 증가'이고, 올바르게는 '4,000 증가'이다.

오답 포인트

단위당 공헌이익만 보고 제품 B를 먼저 선택하거나, 추가 전력으로 늘어난 공헌이익만 보고 고정비 증가액을 빼지 않으면 오답이 된다. 이 문항의 함정은 '제약자원 1단위당 공헌이익'과 '영업이익 변화는 공헌이익 증가분에서 고정비 증가분을 차감한 값'을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약자원 배합문제는 먼저 병목자원 1단위당 공헌이익을 계산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기존 최적배합과 변경 후 최적배합을 다시 구한 다음, 마지막에 고정비 변화까지 반영해 영업이익 변화를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최적배합은 단위당 공헌이익이 아니라 제약자원 1단위당 공헌이익으로 정하고, 영업이익 변화는 추가 공헌이익에서 추가 고정비를 차감해 구한다.

NoteBase

문 9. (주)서울은 20X1년 1월 1일에 <보기>와 같은 조건의 금융리스계약을 (주)대한과 체결하여 기계장치를 리스하였다. 리스실행일에 (주)대한이 인식할 금융리스채권과 (주)서울이 인식할 리스부채의 차이는? (단, 단수차이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보기>
• 리스기간: 3년
•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자산의 예상잔존가치: ₩60,000
• 연간리스료(매년 12월 31일 지급): ₩1,000,000
• 잔존가치의 보증: 리스종료시점에 (주)서울은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50,000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
• 내재이자율: 연 10%
• 연 이자율 10%의 ₩1의 3기간 말 현가계수는 0.751, 연 이자율 10%의 정상연금 ₩1의 3기간 말 현가계수는 2.487이다.

① ₩7,320
② ₩7,390
③ ₩7,430
④ ₩7,51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 리스부채에는 예상 지급 보증잔존가치만 포함되고, 리스제공자 금융리스채권에는 비보증잔존가치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리스기간은 3년이다.
연간리스료는 매년 말 1,000,000원이다.
리스종료시 예상잔존가치는 60,000원이다.
리스이용자가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은 50,000원이다.
내재이자율은 연 10%이다.
3기 말 현가계수는 0.751이고, 3기 말 정상연금현가계수는 2.487이다.
구해야 할 값은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채권에서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리스이용자 리스부채는 연간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보증잔존가치 예상지급액의 현재가치를 합산하여 측정한다.
리스제공자 금융리스채권은 연간리스료의 현재가치와 전체 예상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합산하여 측정한다.
따라서 양자의 차이는 비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가 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리스이용자는 자신이 실제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증분만 부채로 인식하지만,
리스제공자는 보증 여부와 무관하게 회수할 전체 잔존가치를 순투자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연간리스료의 현재가치는 1,000,000 × 2.487 = 2,487,000원이다.
2. 리스이용자 리스부채는 2,487,000 + 50,000 × 0.751 = 2,524,550원이다.
3. 리스제공자 금융리스채권은 2,487,000 + 60,000 × 0.751 = 2,532,060원이다.
4. 차이는 2,532,060 - 2,524,550 = 7,510원이다.

같은 결과를 비보증잔존가치 10,000원에 대한 현재가치 10,000 × 0.751 = 7,510원으로 바로 구할 수도 있다.

선지 판단

① X: 7,320원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차이는 비보증잔존가치 10,000원의 현재가치이므로 7,510원이어야 한다. 틀린 수치는 7,320원이고 올바른 수치는 7,510원이다.
② X: 7,390원도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잔존가치 차이 10,000원에 현가계수 0.751을 적용하면 7,510원이므로 7,390원은 오답이다. 틀린 수치는 7,390원이고 올바른 수치는 7,510원이다.
③ X: 7,430원 역시 비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와 다르다. 제공자 채권과 이용자 부채의 차이는 7,510원으로 계산된다. 틀린 수치는 7,430원이고 올바른 수치는 7,510원이다.
④ O: 금융리스채권은 전체 예상잔존가치 60,000원을 반영하고 리스부채는 보증으로 지급할 50,000원만 반영하므로 차이는 10,000원의 현재가치 7,510원이다.

오답 포인트

잔존가치보증이 있으면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같은 금액을 인식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이 문제의 함정은 리스이용자는 예상 지급 보증분 50,000원만 포함하지만, 리스제공자는 전체 예상잔존가치 60,000원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잔존가치가 있는 금융리스는 먼저 리스이용자에 포함되는 금액이 보증으로 실제 지급할 예상액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리스제공자에는 전체 예상잔존가치가 들어가는지 확인하면 된다. 두 금액의 차이는 비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리스이용자는 보증분만, 리스제공자는 전체 잔존가치를 본다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0. (주)서울은 20X1년 중 (주)대한의 기숙사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계약금액은 ₩20,000이다. 20X1년에 발생한 공사원가는 ₩2,000이고, 향후 예상 투입원가는 ₩8,000이다. 20X2년에 설계변경이 있었고, 이로 인한 원가 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22,000으로 변경하였다. 20X2년에 발생한 공사원가는 ₩4,000이고, 향후 예상 투입원가는 ₩6,000이다. 이 기숙사는 20X3년 중에 완공되었다. 원가기준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측정할 때, (주)서울이 동 계약과 관련하여 20X2년에 인식할 공사이익은?

① ₩2,000

② ₩3,000

③ ₩7,000

④ ₩11,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원가기준 투입법에서 계약변경 후 누적 진행률과 누적 공사이익을 다시 계산한 다음, 전기에 인식한 이익을 차감하여 20X2년 당기 공사이익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20X1년 최초 계약금액은 20,000이고, 20X1년 발생원가는 2,000, 잔여예정원가는 8,000이다.
따라서 20X1년 말 총예정원가는 10,000이고 진행률은 2,000/10,000=20%이다.
20X2년에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22,000으로 바뀌었고, 20X2년 발생원가는 4,000, 20X2년 말 잔여예정원가는 6,000이다.
따라서 20X2년 말 누적발생원가는 6,000, 총예정원가는 12,000이다.

사용할 공식

진행률은 누적발생원가/총예정원가로 계산하고, 누적공사이익은 누적인식수익-누적발생원가로 계산한다.
이 문제는 원가기준 투입법을 사용하므로 계약변경이 생긴 20X2년 말 기준의 최신 계약금액과 최신 총예정원가로 누적 진행률을 다시 구해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X1년 말 진행률은 2,000/10,000=20%이다.
2. 20X1년 누적인식수익은 20,000×20%=4,000이므로 20X1년 공사이익은 4,000-2,000=2,000이다.
3. 20X2년 말 총예정원가는 누적발생원가 6,000과 잔여예정원가 6,000을 합한 12,000이다.
4. 20X2년 말 누적 진행률은 6,000/12,000=50%이다.
5. 20X2년 말 누적인식수익은 22,000×50%=11,000이다.
6. 20X2년 말 누적공사이익은 11,000-6,000=5,000이다.
7. 따라서 20X2년에 추가로 인식할 공사이익은 누적공사이익 5,000에서 20X1년에 이미 인식한 2,000을 차감한 3,000이다.

선지 판단

① X: 2,000은 20X1년에 이미 인식한 공사이익이다. 틀린 표현은 "20X2년 공사이익이 2,000이다"이고, 올바르게는 "20X2년 공사이익은 3,000이다"이다.
② O: 계약변경 후 20X2년 말 누적공사이익 5,000에서 전기 인식이익 2,000을 차감하면 20X2년 공사이익은 3,000이 된다.
③ X: 7,000은 20X2년 당기수익 11,000-4,000으로 혼동할 때 나올 수 있는 값이다. 틀린 표현은 "20X2년 공사이익이 7,000이다"이고, 올바르게는 "20X2년 공사수익은 7,000이지만 공사이익은 3,000이다"이다.
④ X: 11,000은 20X2년 말 누적인식수익이다. 틀린 표현은 "20X2년 공사이익이 11,000이다"이고, 올바르게는 "20X2년 말 누적인식수익이 11,000이고 20X2년 공사이익은 3,000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공사수익, 누적공사이익, 당기공사이익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③이나 ④로 흐르기 쉽다. 또한 계약변경이 있었는데도 20X1년의 원가율을 그대로 쓰면 ①처럼 전기 이익만 떠올리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장기공사계약 계산형 문제는 먼저 최신 계약금액과 최신 총예정원가를 반영해 누적 진행률을 구하고, 그 누적 기준으로 누적수익과 누적이익을 계산한 뒤, 마지막에 전기에 인식한 금액을 차감해 당기 금액을 확정한다.

암기 포인트

원가기준 투입법은 최신 누적원가와 최신 총예정원가로 진행률을 다시 계산하고, 당기이익은 누적이익에서 전기이익을 차감해 구한다.

NoteBase

문 1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운영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하는 것이다.
ㄴ.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ㄷ.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은 차감하고, 비배분수익은 가산하여 표시한다.
ㄹ.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ㅁ. 국가의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순원가는 각 중앙관서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ㅁ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정운영표의 정의, 국가 재정운영표의 표시구분, 재정운영순원가의 가감 방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프로그램순원가는 각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이다.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빼서 구한 순원가이다.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하여 구한 결과이다.

핵심 구분

중앙관서 또는 기금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순원가를 바탕으로 재정운영순원가를 계산한다.
국가 단계에서는 재정운영순원가를 각 중앙관서별로 표시하고, 여기에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하여 재정운영결과를 표시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순원가와 재정운영순원가를 같은 표시단계로 섞거나, 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의 가감 방향을 거꾸로 쓰면 틀린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22 · 10월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재정운영표의 정의를 그대로 설명한 것이므로 옳다. 다만 ㄴ이 틀리고 ㄷ도 틀리므로 ①은 정답이 아니다.
ㄴ의 틀린 표현은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이다. 올바르게는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재정운영순원가, 비교환수익 등, 재정운영결과로 표시한다.
ㄷ의 틀린 표현은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은 차감하고, 비배분수익은 가산"이다. 올바르게는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은 가산하고, 비배분수익은 차감한다.
② X
ㄱ은 옳고 ㄹ도 옳지만 ㄷ이 틀리므로 ②는 정답이 아니다.
ㄷ의 오류는 재정운영순원가 계산의 가감 방향을 반대로 적은 데 있다. 올바르게는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뺀다.
③ O
ㄱ은 재정운영표가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원가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라는 뜻이므로 옳다.
ㄹ은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는 내용이므로 옳다.
ㅁ은 국가의 재정운영표에서 재정운영순원가를 중앙관서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재정운영결과를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하여 표시한다는 내용이므로 옳다.
④ X
ㄹ과 ㅁ은 옳지만 ㄴ이 틀리므로 ④는 정답이 아니다.
ㄴ의 틀린 표현은 국가의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순원가가 직접 표시된다고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재정운영순원가, 비교환수익 등,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한다.

오답 포인트

국가 재정운영표와 중앙관서·기금 재정운영표의 표시단계를 혼동하면 ㄴ과 ㅁ을 함께 잘못 보기 쉽다. 또 재정운영순원가 계산에서 비용은 더하고 수익은 뺀다는 기본 방향을 놓치면 ㄷ에 속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재정운영표가 어느 단계의 서식인지부터 본다. 그다음 프로그램순원가인지 재정운영순원가인지, 마지막에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해 재정운영결과를 구하는지 순서를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프로그램순원가에서 비용은 더하고 수익은 빼서 재정운영순원가를 만들고, 국가 단계에서는 여기서 비교환수익 등을 빼서 재정운영결과를 만든다.

NoteBase

문 12. 12월 31일 결산법인 (주)서울은 20X1년 1월 1일 (주)대한의 발행주식 40%를 ₩1,000,000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주식 취득일 현재 식별할 수 있는 (주)대한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2,000,000이며, 유형자산이 공정가치보다 ₩200,000 과소평가 되었다. 해당 유형자산은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X1년 (주)대한의 당기순이익은 ₩200,000이며, 20X2년 당기순이익은 ₩300,000이고 20X2년 ₩100,000의 현금배당을 하였다. (주)서울이 보유하고 있는 (주)대한의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할 때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주)서울은 (주)대한 주식 이외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① 20X1년 12월 31일 (주)서울이 보고할 지분법이익은 ₩70,000이다.

② 20X2년 12월 31일 (주)서울이 보고할 지분법이익은 ₩102,000이다.

③ 20X1년 12월 31일 (주)서울이 보고할 관계기업투자주식은 ₩1,070,000이다.

④ 20X2년 12월 31일 (주)서울이 보고할 관계기업투자주식은 ₩1,128,000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취득일 공정가치 차이의 추가감가상각과 배당의 처리까지 반영하여 지분법이익과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취득지분율 40%, 취득원가 1,000,000원
취득일 순자산 장부금액 2,000,000원
유형자산 공정가치가 장부가보다 200,000원 높고, 5년 정액법 감가상각
20X1년 당기순이익 200,000원
20X2년 당기순이익 300,000원, 현금배당 100,000원
구해야 할 값:
20X1년과 20X2년의 지분법이익, 각 연도 말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
주의할 조건:
취득일 공정가치 차이는 투자자 지분만큼만 반영하고, 배당금은 지분법이익이 아니라 투자계정 차감으로 처리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지분법이익 = 피투자회사 순이익 × 지분율 - 취득일 공정가치 차이 상각액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 = 취득원가 + 누적 지분법이익 - 누적 배당금 수취액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주)서울은 40%를 보유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지분법을 적용한다. 또한 취득일에 유형자산이 200,000원 과소평가되어 있었으므로 그 차이 중 투자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추가감가상각으로 나누어 지분법이익에서 차감해야 한다.

계산 과정

1. 취득일 순자산 지분액은 2,000,000원 × 40% = 800,000원이다.
2. 유형자산 공정가치 차이의 투자자 지분은 200,000원 × 40% = 80,000원이다.
3. 연간 추가감가상각 조정액은 80,000원 ÷ 5년 = 16,000원이다.
4. 20X1년 지분법이익은 200,000원 × 40% - 16,000원 = 64,000원이다.
5. 20X1년 말 관계기업투자주식은 1,000,000원 + 64,000원 = 1,064,000원이다.
6. 20X2년 지분법이익은 300,000원 × 40% - 16,000원 = 104,000원이다.
7. 20X2년 수취배당금은 100,000원 × 40% = 40,000원이고, 이는 투자계정 차감이다.
8. 20X2년 말 관계기업투자주식은 1,064,000원 + 104,000원 - 40,000원 = 1,128,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20X1년 지분법이익은 64,000원이다. 순이익 지분액 80,000원에서 유형자산 공정가치 차이에 대한 추가감가상각 16,000원을 차감해야 하므로 70,000원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지분법이익은 70,000원이다"이며, 올바르게는 "지분법이익은 64,000원이다"이다.
② X: 20X2년 지분법이익은 104,000원이다. 20X2년 순이익 지분액 120,000원에서 추가감가상각 16,000원을 차감하면 된다. 현금배당 40,000원은 지분법이익 계산에 넣지 않고 투자계정을 줄이는 항목이므로 102,000원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지분법이익은 102,000원이다"이며, 올바르게는 "지분법이익은 104,000원이다"이다.
③ X: 20X1년 말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은 1,064,000원이다. 취득원가 1,000,000원에 20X1년 지분법이익 64,000원만 가산하므로 1,070,000원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관계기업투자주식은 1,070,000원이다"이며, 올바르게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은 1,064,000원이다"이다.
④ O: 20X2년 말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은 1,128,000원이다. 20X1년 말 장부금액 1,064,000원에 20X2년 지분법이익 104,000원을 더하고, 수취배당금 40,000원을 차감하면 1,128,000원이 된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취득일 공정가치 차이 200,000원 전체를 그대로 쓰거나, 배당금을 지분법이익 계산에 섞어 버리는 데 있다. 지분법이익은 순이익 지분액에서 추가감가상각만 조정하고, 배당금은 장부금액만 줄인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분법 계산 문제는 취득원가 확인 → 취득일 순자산 공정가치 차이 중 투자자 지분 계산 → 연간 상각액 산정 → 당기 지분법이익 계산 → 배당금 차감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지분법은 순이익은 더하고 배당금은 빼며, 취득일 공정가치 차이는 투자자 지분만큼 나누어 상각한다.

NoteBase

문 13. ㈜서울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0, 액면이자율 연 4%(매년 말 지급조건), 3년 만기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전환사채의 만기일에 상환할증금 ₩8,000을 액면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재무상품에 대한 현행시장 이자율이 10%일 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10%의 3기간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는 0.75, 10%의 3기간 정상연금의 ₩1의 현가계수는 2.5이다.)

① 전환권대가는 ₩15,000이다.

② 전환권조정은 ₩17,000이다.

③ 전환사채 발생 시의 자본요소는 ₩9,000이다.

④ 전환권을 행사하여 전환사채가 지분증권으로 대체되는 경우, 전환권대가는 교부되는 주식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환사채 발행 시 부채요소의 현재가치, 전환권대가, 전환권조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액면금액 100,000원
- 표면이자율 연 4%, 매년 말 이자 지급이므로 연간 이자 4,000원
- 만기 상환액 108,000원(액면 100,000원 + 상환할증금 8,000원)
- 유사사채 시장이자율 10%
- 3기 단일금액 현가계수 0.75
- 3기 정상연금 현가계수 2.5

구해야 할 값:
- 부채요소의 현재가치
- 전환권대가
- 전환권조정

주의할 조건:
- 만기 상환할증금 8,000원을 만기현금흐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부채요소 현재가치 = 이자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만기상환액의 현재가치이다.
부채요소 = 4,000 × 2.5 + 108,000 × 0.75 = 10,000 + 81,000 = 91,000
전환권대가 = 발행대가 100,000 - 부채요소 91,000 = 9,000이다.
전환권조정 = 전환사채 100,000과 상환할증금 8,000의 합계 108,000에서 부채요소 91,000을 뺀 17,000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 전환권이 없는 유사사채의 시장이자율 10%로 부채요소를 먼저 측정하고, 남는 금액을 자본요소로 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연간 이자지급액은 $100,000 \times 4\% = 4,000$원이다.
2. 이자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4,000 \times 2.5 = 10,000$원이다.
3. 만기상환액의 현재가치는 $108,000 \times 0.75 = 81,000$원이다.
4. 부채요소의 현재가치는 $10,000 + 81,000 = 91,000$원이다.
5. 전환권대가는 $100,000 - 91,000 = 9,000$원이다.
6. 전환권조정은 $108,000 - 91,000 = 17,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전환권대가는 총 발행대가 100,000원에서 부채요소 91,000원을 차감한 9,000원이다. "전환권대가는 15,000원이다"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전환권대가는 9,000원이다"이다.
15,000원은 만기상환할증금 8,000원을 누락하고
$100,000 - (4,000 \times 2.5 + 100,000 \times 0.75) = 15,000$으로 계산할 때 나오는 오답이다.

② O
전환권조정은 전환사채 액면 100,000원과 상환할증금 8,000원의 합계 108,000원에서 부채요소 91,000원을 차감한 17,000원이다. 상환할증금까지 포함한 총 상환의무와 현재가치의 차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③ O
전환사채 발생 시의 자본요소는 전환권대가이며 금액은 9,000원이다. 액면발행이라도 부채요소를 시장이자율로 현재가치 평가한 뒤 남는 금액을 자본으로 본다.

④ O
전환권을 행사하면 기존의 부채요소는 자본으로 대체되고, 전환권대가는 별도의 손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교부되는 주식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선지의 서술은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15,000원은 만기 상환할증금 8,000원을 만기현금흐름에서 빼고 계산할 때 나오는 값이다. 또한 ②의 전환권조정 17,000원과 ③의 자본요소 9,000원을 같은 성격의 금액으로 혼동하기 쉽지만, 전환권조정은 할인성 부채조정계정이고 전환권대가는 자본요소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환사채 문제는 먼저 전환권이 없는 유사사채의 시장이자율로 부채요소 현재가치를 구하고, 그다음 발행대가와의 차이를 전환권대가로 판단한다. 상환할증금이 있으면 만기상환액과 전환권조정 계산에 반드시 포함한다.

암기 포인트

전환사채는 부채 현가를 먼저 구하고 남는 금액이 전환권대가이며, 상환할증금까지 포함한 총상환액과 부채 현가의 차이가 전환권조정이다.

NoteBase

문 14. (주)서울은 20X1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10,000이며,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는 <보기>와 같다.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법인세 비용은?

<보기>
• 과거연도에 발생된 일시적 차이는 없다.
• 20X1년의 법인세 계산에 적용할 세율은 10%이다. (이후에도 동일세율을 적용한다.)
• 세무조정사항
- 20X1년 미수이자수익 ₩200
- 20X1년 접대비 한도 초과액 ₩500

① ₩1,000
② ₩1,030
③ ₩1,050
④ ₩1,08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세무조정 항목을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로 구분하여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합산한 법인세비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
- 세율: 10%
- 미수이자수익 ₩200: 회계상 먼저 인식되고 세무상은 미래에 과세되는 일시적 차이이다.
- 접대비 한도 초과액 ₩500: 세무상 손금불산입되는 영구적 차이이다.
- 과거연도 발생 일시적 차이: 없다.

사용할 공식

법인세비용 = 당기법인세 + 이연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 = 과세소득 × 세율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은 과세소득으로 계산한 당기법인세에 일시적 차이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비용까지 반영한 금액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과세소득 = 10,000 - 200 + 500 = 10,300
미수이자수익 ₩200은 당기 과세소득에서 빠지고, 접대비 한도 초과액 ₩500은 손금불산입되어 더해진다.
2. 당기법인세를 계산한다.
당기법인세 = 10,300 × 10\% = 1,030
3.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계산한다.
미수이자수익 ₩200은 회계상 먼저 수익으로 인식되고 세무상은 미래에 과세되므로 가산할 일시적 차이이며,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한다.
이연법인세비용 = 200 × 10\% = 20
4. 총 법인세비용을 계산한다.
법인세비용 = 1,030 + 20 = 1,050

선지별 해설

① X
- 1,000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에 세율 10%만 곱한 값이다. 미수이자수익 ₩200과 접대비 한도 초과액 ₩500이라는 세무조정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함께 반영한 ₩1,050이다.

② X
- 1,030은 과세소득 ₩10,300에 대한 당기법인세만 계산한 값이다.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은 미수이자수익 ₩200에서 생기는 이연법인세비용 ₩20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틀렸다. 올바르게는 ₩1,050이다.

③ O
- 1,050은 당기법인세 ₩1,030에 미수이자수익 ₩200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비용 ₩20을 더한 값이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 ₩500은 영구적 차이이므로 이연법인세를 만들지 않는다.

④ X
- 1,080은 세무조정 효과를 잘못 중복 반영한 오답이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 ₩500은 영구적 차이이므로 당기과세소득만 증가시킬 뿐 추가 이연법인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1,050이다.

오답 포인트

미수이자수익 ₩200과 접대비 한도 초과액 ₩500을 둘 다 같은 성격의 차이로 보면 오답이 된다. 미수이자수익은 미래 과세가 남아 있는 일시적 차이이고,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미래에 되돌아오지 않는 영구적 차이라는 구분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인세 회계 문제는 먼저 각 세무조정을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로 분류한 뒤, 영구적 차이는 당기법인세만 바꾸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까지 추가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영구적 차이는 당기세금만 바꾸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까지 만든다.

NoteBase

문 15. (주)서울은 두 개의 제조부문인 M1, M2와 두 개의 보조부문 S1, S2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상호배분법을 사용하여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고 있다. 각 부문간의 원가 및 용역제공비율이 <보기>와 같을 때, M1에 배분될 보조부문의 원가는?

〈보기〉

용역제공비율		제조부문		보조부문	
		M1	M2	S1	S2
	S1	0.4	0.2		0.4
	S2	0.2	0.3	0.5	
부문원가				₩1,100	₩1,000

① ₩1,160

② ₩1,170

③ ₩1,190

④ ₩1,1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상호배분법에서 보조부문 상호용역을 연립방정식으로 반영한 뒤 M1에 배분될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S1의 직접원가 1,100원, S2의 직접원가 1,000원이다.
- S1은 M1에 0.4, M2에 0.2, S2에 0.4를 제공한다.
- S2는 M1에 0.2, M2에 0.3, S1에 0.5를 제공한다.

구해야 할 값:
- M1에 최종 배분되는 보조부문 원가이다.

주의할 조건:
- 상호배분법이므로 S1과 S2가 서로에게 제공한 용역을 먼저 반영해야 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22 · 10월

사용할 공식

보조부문 총원가를 각각 x, y라 두면
$x = 1,100 + 0.5y$
$y = 1,000 + 0.4x$
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상호배분법에서는 각 보조부문이 다른 보조부문으로부터 받은 용역원가까지 포함한 총원가를 먼저 계산한 뒤 제조부문에 배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S1의 총원가를 x, S2의 총원가를 y라 두면 $x = 1,100 + 0.5y$, $y = 1,000 + 0.4x$이다.
2. $y = 1,000 + 0.4x$를 첫 식에 대입하면 $x = 1,100 + 0.5(1,000 + 0.4x) = 1,600 + 0.2x$이므로 $0.8x = 1,600$, 따라서 $x = 2,000$이다.
3. $y = 1,000 + 0.4 \times 2,000 = 1,800$이다.
4. M1 배분액은 S1에서 0.4 \times 2,000 = 800원, S2에서 0.2 \times 1,800 = 360원이므로 합계는 1,16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계산 결과 M1에 배분되는 보조부문 원가는 1,160원이므로 옳다.

② X
- 1,170원은 계산 결과 1,160원과 다르므로 틀리다.
- 틀린 표현은 "M1 배분액이 1,170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M1 배분액은 1,160원이다"이다.
- 이런 값은 연립방정식 해를 잘못 구하거나 마지막 합산에서 산술오차를 낸 경우에 나올 수 있다.

③ X
- 1,190원은 계산 결과 1,160원과 다르므로 틀리다.
- 틀린 표현은 "M1 배분액이 1,190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M1 배분액은 1,160원이다"이다.
- 이런 값은 상호배분비율을 잘못 대입해 S1 또는 S2 총원가를 과대계산한 경우에 나올 수 있다.

④ X
- 1,100원은 S1의 직접원가와 같을 뿐, S2로부터 받은 상호용역과 S2 자체의 M1 배분액이 반영되지 않아 틀리다.
- 틀린 표현은 "M1 배분액이 1,100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M1 배분액은 1,160원이다"이다.
- 이 값은 상호배분법을 무시하고 직접원가만 본 경우의 오답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상호배분법인데도 보조부문 직접원가만 바로 제조부문에 배분하거나, S1과 S2가 서로에게 제공한 0.4와 0.5를 제조부문 배분비율과 혼동하면 오답이 된다. 특히 ④처럼 직접원가만 보고 끝내는 실수가 대표적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조부문이 서로 용역을 제공하면 먼저 각 보조부문 총원가를 연립방정식으로 구한 뒤, 그 총원가에 제조부문 배분비율을 곱해 최종 배분액을 계산한다고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총원가를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 제조부문 배분액을 구하는 방식이다.

NoteBase

문 16. <보기>는 12월 말 결산법인 ㈜서울의 20X1년 12월 31일 기말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20X1년 당기매입액은 기초재고의 5배이며, 당기 매출원가는 ₩518,000이다. 재고감모분 중 50%는 정상감모로 판단하며, 정상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전액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20X1년 ㈜서울의 당기매입액은?

〈보기〉

장부수량	실지재고수량	취득단가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100개	80개	₩1,000	₩900

① ₩100,000

② ₩200,000

③ ₩400,000

④ ₩50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상감모·비정상감모와 재고자산평가손실의 반영 위치를 구분한 뒤,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원가를 이용해 당기매입액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장부수량 100개, 실지재고수량 80개, 취득단가 1,000원,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900원, 매출원가 518,000원이다.
감모수량은 20개이므로 감모금액은 20,000원이다.
감모의 50%는 정상감모이므로 정상감모손실 10,000원, 비정상감모손실 10,000원으로 나뉜다.
정상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이미 매출원가에 포함되고, 비정상감모손실만 매출원가 밖에서 별도로 더해 준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사용가능재고원가 = 매출원가 + 기말재고자산 + 비정상감모손실이다.
변수로 두면 기초재고자산 = B, 당기매입액 = 5B이므로 B + 5B = 매출원가 + 기말재고자산 + 비정상감모손실이 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정상감모와 평가손실은 이미 매출원가 518,000원 안에 포함되어 있고, 비정상감모만 별도 손실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실지재고 80개의 취득원가는 80,000원이고, 순실현가능가치는 72,000원이므로 기말재고자산은 72,000원이다.
2. 감모 20개 중 정상감모는 10개 10,000원, 비정상감모도 10개 10,000원이다.
3. 따라서 사용가능재고원가는 518,000 + 72,000 + 10,000 = 600,000원이다.
4. $B + 5B = 600,000$이므로 $6B = 600,000$, $B = 100,000$이다.
5. 당기매입액은 $5B = 50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100,000원은 기초재고자산 금액이다. 당기매입액은 기초재고의 5배이므로 100,000원이 아니라 500,000원이어야 한다.
② X: 200,000원을 대입하면 기초재고자산은 40,000원이고 사용가능재고원가는 240,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매출원가 518,000원과 기말재고 72,000원, 비정상감모 10,000원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당기매입액은 200,000원이 아니라 500,000원이다.
③ X: 400,000원을 대입하면 기초재고자산은 80,000원이고 사용가능재고원가는 480,000원이다. 주어진 원가흐름 총액 600,000원과 맞지 않으므로 틀리다. 당기매입액은 400,000원이 아니라 500,000원이다.
④ O: 기말재고자산 72,000원과 비정상감모손실 10,000원을 매출원가 518,000원에 더하면 사용가능재고원가 600,000원이 된다. 이를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 = B + 5B에 대입하면 당기매입액은 500,000원으로 계산된다.

오답 포인트

정상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다시 더해 이중 반영하거나, 비정상감모손실까지 매출원가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처리하면 금액이 틀어진다. 이 문항의 함정은 어떤 손실이 매출원가 안에 들어 있고 어떤 손실이 별도 항목인지 구분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고평가 계산형은 실지재고로 기말재고자산을 먼저 확정하고, 감모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눈 뒤, 매출원가에 이미 포함된 항목과 별도로 더할 항목을 구분해서 사용가능재고원가 식을 세우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정상감모와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되고, 비정상감모는 별도 손실로 본다.

NoteBase

문 17. (주)서울의 20X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주(주당 액면금액 ₩5,000), 유통우선주는 400주(주당 액면금액 ₩5,000, 비누적적 · 비참가적)이다. 20X1년 5월 1일에 보통주에 대하여 10%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7월 1일에 보통주 700주의 유상증자를 공정가치로 실시하였다. 또한 10월 1일에 자기주식 200주를 주당 ₩7,000에 취득하였다. 20X1년도 당기순이익이 ₩1,600,000이고, 우선주의 배당률이 10%라면 (주)서울의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① ₩800

② ₩900

③ ₩1,000

④ ₩1,1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선주배당액을 차감한 보통주 귀속이익과 무상증자·유상증자·자기주식 취득을 반영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기본주당순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기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주이다.
- 5월 1일 10% 무상증자는 기초부터 소급반영하므로 보통주식수는 1,100주로 본다.
- 7월 1일 유상증자 700주는 공정가치 발행이므로 그 시점부터 가산한다.
- 10월 1일 자기주식 200주 취득은 그 시점부터 차감한다.
- 우선주배당액은 400주 × 5,000원 × 10% = 200,000원이다.
- 구해야 할 값은 기본주당순이익이다.

사용할 공식

기본주당순이익은 (당기순이익-우선주배당액)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계산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기본주당순이익이 보통주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해당 기간 실제 유통된 보통주식수로 나누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보통주 귀속이익은 1,600,000원 - 200,000원 = 1,400,000원이다.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무상증자를 소급반영하여 $1,100\times6/12 + 1,800\times3/12 + 1,600\times3/12 = 1,400$주이다.
3. 따라서 기본주당순이익은 $1,400,000/1,400 = 1,0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800"이 틀리다. 계산 결과 기본주당순이익은 1,000원이므로 올바르게는 "₩1,000"이다. 우선주배당액 차감이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계산을 잘못하면 나오는 오답이다.
② X: "₩900"이 틀리다.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올바르게는 "₩1,000"이다. 무상증자 소급반영이나 자기주식 차감을 일부 누락하면 가까워질 수 있는 오답이다.
③ O: 보통주 귀속이익은 1,400,000원이고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1,400주이므로 기본주당순이익은 1,000원이다.
④ X: "₩1,100"이 틀리다. 계산 결과 기본주당순이익은 1,000원이므로 올바르게는 "₩1,000"이다. 우선주배당액을 차감하지 않거나 월할계산을 잘못하면 나올 수 있는 오답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세 가지이다. 첫째, 무상증자는 5월 1일 이후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주식수까지 소급반영한다. 둘째, 자기주식 200주는 10월 1일부터 분모에서 차감한다. 셋째, 우선주배당액 200,000원을 보통주 귀속이익 계산에서 빼지 않으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본주당순이익 문제는 먼저 분자를 보통주 귀속이익으로 정리하고, 다음에 분모를 무상증자 소급반영 여부와 자기주식 차감 시점을 반영한 월할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계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기본 EPS는 보통주 귀속이익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이며, 무상증자는 기초부터 소급반영하고 자기주식은 취득일부터 차감한다.

NoteBase

문 18. 건설회사인 (주)서울은 20X1년 초 (주)대한과 ₩1,000,000의 공장건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은 기간에 걸쳐서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계약조건에 <보기>와 같이 공사기간 경과에 따른 위약금이 포함된다. (주)서울이 기댓값에 의해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동 건설 계약의 거래가격은?

〈보기〉

구분	발생확률	변동대가
기간준수	50%	₩0
1달 경과	30%	₩100,000
2달 경과	20%	₩200,000

① ₩930,000

② ₩970,000

③ ₩990,000

④ ₩1,00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사기간 경과에 따른 위약금이라는 변동대가를 기대값으로 추정하여 거래가격에 반영하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고정 계약금액: 1,000,000원
변동대가의 성격: 공사 지연 시 차감되는 위약금
가능한 결과: 기간준수 50%는 0원, 1달 경과 30%는 100,000원, 2달 경과 20%는 200,000원
구해야 할 값: 기대값 기준 거래가격

사용할 공식

거래가격 = 고정대가 - 기대 위약금
기대 위약금 = 0 × 50% + 100,000 × 30% + 200,000 × 20%
여러 결과와 각 확률이 함께 주어졌으므로 단일 결과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확률가중 기대값으로 변동대가를 추정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기대 위약금은 0 + 30,000 + 40,000 = 70,000원이다.
2. 거래가격은 1,000,000원 - 70,000원 = 930,000원이다.
3.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선지 판단

① O: 기대 위약금 70,000원을 고정 계약금액 1,000,000원에서 차감하면 930,000원이므로 옳다.
② X: 970,000원은 100,000원 × 30% = 30,000원만 차감하고 200,000원 × 20% = 40,000원을 누락한 값이다. 거래가격은 970,000원이 아니라 930,000원이다.
③ X: 990,000원은 표에 제시된 확률가중 위약금을 반영해 나온 값이 아니다. 기대 위약금 전체 70,000원을 차감해야 하므로 거래가격은 990,000원이 아니라 930,000원이다.
④ X: 1,000,000원은 위약금이라는 변동대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거래가격은 1,000,000원이 아니라 93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변동대가가 여러 경우의 수로 주어지면 각 금액에 확률을 곱한 기대값을 먼저 구해야 한다. ②는 일부 경우만 반영한 오답이고, ④는 위약금을 아예 무시한 오답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확률과 금액이 함께 주어진 변동대가 문제는 각 결과의 금액에 확률을 곱해 기대값을 구한 뒤, 그 항목이 보너스인지 위약금인지 판단하여 고정대가에 가감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대값 거래가격 = 고정대가 ± 확률가중 변동대가이며, 위약금은 차감항목이다.

NoteBase

문 19. 12월 말 결산법인 (주)서울은 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5%, 만기 3년)의 사채를 20X1년 1월 1일 발행하였으며, 사채발행일 유효이자율은 10%이다. 20X2년 1월 1일 현재 사채의 장부금액은 ₩913,200이다. (주)서울은 20X2년 1월 1일 사채 액면금액 가운데 ₩500,000을 ₩450,000에 조기상환하였다. 해당 사채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20X2년 12월 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이자지급일은 매년 12월 31일이다.)

① ₩6,600 증가

② ₩6,600 감소

③ ₩39,060 감소

④ ₩52,260 감소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채의 조기상환손익과 조기상환 후 남아 있는 사채의 유효이자비용을 함께 반영하여 당기손익 영향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20X2년 1월 1일 사채 장부금액: 913,200원
- 조기상환 액면금액: 500,000원
- 조기상환 지급액: 450,000원
- 유효이자율: 10%

구해야 할 값:
- 해당 사채 관련 회계처리가 20X2년 12월 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순영향

주의할 조건:
- 20X2년 1월 1일에 액면금액의 절반을 조기상환하므로 장부금액도 절반인 456,600원을 제거한다.
- 남은 사채에 대해서만 20X2년 이자비용을 인식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조기상환손익은 제거되는 장부금액과 지급대가의 차이로 계산한다.
조기상환손익 = 제거되는 장부금액 - 조기상환지급액
남은 사채의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다.
이자비용 = 기초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이 문항은 사채 일부를 연초에 소각하였으므로 먼저 제거되는 장부금액으로 조기상환손익을 계산해야 하고, 이후에는 남아 있는 사채의 장부금액에 대해서만 유효이자율법상 이자비용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조기상환되는 절반의 장부금액은 913,200원 × 1/2 = 456,600원이다.
2. 조기상환손익은 456,600원 - 450,000원 = 6,600원 이익이다.
3. 조기상환 후 남은 사채의 기초장부금액은 913,200원 - 456,600원 = 456,600원이다.
4. 20X2년 이자비용은 456,600원 × 10% = 45,660원이다.
5.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대한 순영향은 조기상환이익 6,600원 증가와 이자비용 45,660원 감소효과를 함께 반영하므로 6,600원 - 45,660원 = -39,060원이다.
6. 따라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9,060원 감소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22 · 10월

선지별 해설

① X
- 6,600원 증가는 조기상환이익만 반영한 값이다.
- 틀린 표현은 손익의 순효과를 6,600원 증가로 본 점이다.
- 올바르게는 조기상환이익 6,600원 외에 남은 사채의 이자비용 45,660원을 추가로 인식하므로 순효과는 39,060원 감소이다.

② X
- 6,600원 감소는 조기상환손익의 방향을 반대로 본 값이다.
- 틀린 표현은 450,000원 지급을 장부금액 456,600원보다 큰 것으로 본 점이다.
- 올바르게는 456,600원 장부금액을 450,000원에 상환하였으므로 조기상환이익 6,600원이 발생한다.

③ O
- 제거되는 장부금액은 456,600원이고 조기상환이익은 6,600원이다.
- 남은 사채의 20X2년 이자비용은 45,660원이다.
- 따라서 순영향은 6,600원 - 45,660원 = 39,060원 감소이므로 옳다.

④ X
- 52,260원 감소는 조기상환손익 6,600원을 차손으로 잘못 처리한 값이다.
- 틀린 표현은 조기상환 시 손익을 6,600원 감소로 본 점이다.
- 올바르게는 조기상환에서는 6,600원 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남은 사채의 이자비용 45,660원과 합산하면 순감소액은 39,060원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조기상환손익만 보고 끝내거나, 조기상환손익의 부호를 반대로 잡는 데 있다. 일부상환 문제에서는 제거되는 장부금액을 비례배분한 뒤 조기상환손익을 계산하고, 그 다음 남은 장부금액에 대한 당기 이자비용까지 반드시 연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채 일부 조기상환 문제는 기초장부금액 비례배분 → 조기상환손익 계산 → 남은 장부금액으로 유효이자비용 계산 → 두 금액의 순영향 합산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일부 조기상환은 제거되는 장부금액을 먼저 나누고, 손익은 상환시점에 한 번, 이자비용은 남은 장부금액에 대해 다시 계산한다.

NoteBase

문 20. 금융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여부와 상관없이 손상을 인식하지 않는다.
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취득 시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ㄷ. 채무상품의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상을 인식하지 않는다.
ㄹ. 채무상품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 후속기간 동안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보고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금융자산 분류별 후속측정 방식과 기대신용손실 손상모형 적용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분상품: 주식 등 잔여지분에 대한 권리이며 기대신용손실 손상모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키워드: 손상 인식 없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취득 시점과 후속기간 모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자산에 가산하지 않고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키워드: 거래원가 비용화.
채무상품: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분류되면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아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인식한다. 키워드: Stage 1도 손상 인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후속기간 동안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보고한다. 키워드: 채무상품 FVOCI.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맞지만 ㄴ이 틀려서 오답이다. ㄱ은 지분상품이 기대신용손실 손상모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와 무관하게 손상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ㄴ의 틀린 부분은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가산한다"이다. 올바르게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①의 조합은 틀리고 올바른 조합은 ㄱ, ㄹ이다.
② O: ㄱ과 ㄹ이 모두 맞다. ㄱ은 지분상품에 손상모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고, 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을 후속기간 동안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맞는 문장만 고른 조합은 ②이다.
③ X: ㄴ과 ㄷ이 모두 틀려서 오답이다. ㄴ의 틀린 부분은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 가산한다"이고, 올바르게는 거래원가를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ㄷ의 틀린 부분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는다"이고, 올바르게는 채무상품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아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따라서 ③의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X: ㄹ은 맞지만 ㄷ이 틀려서 오답이다. ㄷ의 "손상을 인식하지 않는다"가 잘못되었고, 올바르게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따라서 ㄷ, ㄹ이 아니라 ㄱ, ㄹ이 맞는 조합이다.

오답 포인트

지분상품의 손상 미인식 규정을 채무상품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ㄷ을 맞는 문장으로 오해하기 쉽다. 또한 공정가치 측정이라는 표현만 보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까지 자산에 가산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을 구분한다. 지분상품은 손상모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채무상품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없어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 그다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이면 거래원가는 비용 처리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면 후속측정은 공정가치라는 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지분상품은 손상 없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은 거래원가 비용화, 채무상품 Stage 1도 손상 인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공정가치 평가이다.

NoteBase